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의 직업희망과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

이 옥*

- I. 서 론
- II. 관련연구의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 론

I. 서 론

청소년기는 직업의 탐색과 진로 계획에 있어서의 결정적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직업에 관한 탐색과 준비가 이루어져야함은 남자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과제가 아니다. 비록 여성의 직업 참여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여전히 낮고 여성의 생애가 가정생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화 이후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여성 자신들의 의식 전환에 힘입어 여성의 취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한 가정의 경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여성(주부)의 취업

이 더욱 더 보편화 되리라 여겨진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여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심을 갖는 일은 남녀 불평등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의한 여성취업의 증가추세가 긍정적인 것이라해도 여성의 취업구조를 분석하면, 상당히 제한된 직업에 여성의 직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여성의 취업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18세 이상 여성인구의 63%가 취업하고 있다)도 마찬가지다. 즉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비서직, 간호사등의 의료보조직, 교사직 또는 판매직과 같은 서어비스직으로 사회통념상 여성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직종에 취업여성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실제 취업 현상 뿐 아니라 여성

*덕성여대 가정학과교수

들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제한된 직업적 희망과 직업적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보다 융통성있는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모색에 있어서 사회와 학교의 역할 못지 않게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사회든 개인의 가정환경은 항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달환경이었다. 이미 오래전 Caplow(1954)가 지적하였듯이 가정환경은 개인에게 가능한 직업의 폭을 결정함으로써 전통사회의 가족내 세대간 직업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직업의 대물림이라기 보다는 직업수준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Caplow의 주장이 주로 남자 청년들의 직업결정 과정에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긴 하나 현대 사회의 여성취업,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진로의식 발달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소년기 여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의 기초로써 그간의 연구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 통념상 여성에게 비전통적 직업으로 인식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人性的 특징과 환경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들의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의 직업관을 확장시켜 융통성 있는 직업선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로지도의 실제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직업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남성의 직업발달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도 적고 이론적 접근도 지체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특정한 직업 선택과 관련된 변수를 추정하려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물론 기존의 연구간에 상충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으나 청소년기 여성의 가정환경은 직업선택에 강력한 영향요인일 가능성을 대체로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진로선택과 관련되는 가정환경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요인, 딸의 직업모델로써의 어머니의 취업요인, 그리고 딸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요인 등을 가정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구미의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나 이들 가정환경 요인들이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어 직업적 희망에 반영되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느 정도로 전통적 관념상 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이하 전통적 직업) 또는 비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이하 비전통적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들의 비전통적 직업희망은 다음의 3가지 가정환경요인과 관계가 있는가?

- 1) 사회 경제적 지위
- 2) 어머니의 취업
- 3) 부모의 심리적 지지

II. 관련 연구의 검토

1. 직업발달

1950년대를 기점으로 직업발달 이론은 직업선택에 관한 특성 요인 이론으로부터 직업발달의 구성개념을 구안하고 직업발달의 인과관계

를 탐색하는데까지 발전되었다. 1950년대 이전의 직업상담 연구들은 직업선택을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하여 주로 개인의 특성과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성공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관련시켜 부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직업발달은 전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게 되었으며 한 개인의 직업발달은 자신과 직업적 현실에 대한 이해의 성장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직업발달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Ginzberg(1951)등과 Super(1953), Tiedeman(1961), Roe(1956) 그리고 Holland(1966)의 이론을 들 수 있다.

Ginzberg는 개인의 직업선택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교육적 요인 및 가치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는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직업발달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기의 직업희망과 성인기의 실제 직업선택은 중요한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Super는 자아개념과 직업선택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직업유형은 개인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취업기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직업발달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그 가운데 청년기를 더욱 세분화하여 직업발달상 청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직업정체감의 탐색이야말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Tiedeman등도 역시 개인의 직업발달을 설명하는데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강조하여 직업발달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직업에 만족을 느끼면서 개인의 자아정체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보

았다.

Roe의 연구는 개인의 욕구와 관련 직업발달을 설명하려 하였는데 개인이 성장 초기 부모 자녀 관계에 의하여 직업선택이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는 개인의 직업발달에 있어서의 조기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Holland는 직업적 환경유형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성격유형을 제시하면서 직업선택은 개인의 동기와 유전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직업발달 이론은 개인의 직업발달 과정은 생애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 발달되며 개인의 직업발달은 자아의 발달과 관계되어있고, 개인의 조기 경험이 이후의 직업선택과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직업세계와 자아에 대한 개념이 청년기에 결정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청년기의 직업발달을 도와주기 위한 진로교육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여성의 직업인식과 직업희망

국내 취업여성의 절대다수가 비숙련 직업이나 급료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명희, 1985)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도 이유가 있지만 취업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식수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즉 적지않은 여성들이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고(이육, 1986), 직업을 통한 자아규정 의식이 부족한 데에서 충동적인 직업선택이나 소득원으로서의 임시 직업을 갖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가족의 보호나 가정관리와 같은 유사한 직업, 예컨대 사무 비서직, 교직,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소위 여성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Nagely, 1971). 여성의 취업구조면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 이전의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도 여성의 직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성 고정 관념적 직업관을 나타내고 있다(이옥, 198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hinar(1975)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직업에 관하여 성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절대 다수의 직종을 남성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직업세계의 수많은 직종을 남성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Berman(1972)의 연구에서는 50%이상의 여학생이 단 세가지 직종, 즉 비서와 간호직 및 교직을 희망하였으며 약 80%의 학생들이 13종의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ziger(1983) 역시 청소년기 남녀 학생의 희망 직종을 비교 검토한 연구를 통해 여학생의 희망 직업이 남학생에 비해 현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청소년기 이전의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Schlossberg와 Goodman, 1972)에서도 직업에 대한 성고정적 관념은 여전히 발견된다. 결국 이 연구들은 성고정적 직업관이 아동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여성의 직업의식은 당연히 그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여성의 직업선택 및 직업희망과 가정환경 요인

가정환경은 특히 여성들의 직업인식과 큰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Danziger(1983)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직업희망은 학업성적과 같은 자신의 업적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여학생들은 가정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취업모의 환경요인을 분석, 연구한 Nagely(1971)는 전통적으로 비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과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을 비교한 결과 그들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 110명의 여성을 추적 연구한 Almquist와 Angrist(1970)는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어머니들이 전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높았고, 직업을 가진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에서의 전공학과 측면에서 여성적인 학과와 비여성적인 학과 여대생들의 환경요인을 분석한 Crawford(1978)의 연구 역시 그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Lavine (1982)와 Jordan (1978)의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이 피험자의 비전통적 직업선택 요인이 아니었음을 제시, 앞의 연구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14세부터 22세까지의 청년기 여성의 직업 희망과 환경요인을 조사한 Shapiro와 Crowley (198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딸이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호하여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Dillard와 Perrin(1980)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직업적 희망과 기대는 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장 관계가 크다고 하였다. Lobbia(1984)는 고등학교 여학생의 비전통적인 직업선호 경향은 그들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밖에 Heins등(1982)과, Harber(1980)도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희망직업 유형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앞에서 논의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요인에 대해서는 상충된 결과가 나타나기도했으나 관련연구를 근거할 때, 가정환경중 세가지 요인,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요인, 어머니의 취업요인 및 부모의 딸에 대한 심리적 지지요인은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희망직업 유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1,330명이다. 이 가운데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715명,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은 615명이다. 이들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의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선정한 9개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급단위로 선정, 조사되었다. 1,330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희망 직업을 포함, 여러 문항에 답하지 않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2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1,320명의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을 청소년기의 여학생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고교 진

<표 1>

조사대상자

학년	학교의 소재지	조사 대상수	분석 제외 대상수	분석 대상수
중 3	서울 종로구	159	0	159
	강서구	216	2	214
	강남구	235	2	234
	도봉구	105	4	101
고 2	강남구	188	0	188
	강동구	102	2	100
	강서구	109	0	109
	성북구	66	0	66
	용산구	150	0	150
계		1,330	10	1,320

학을 포함, 중학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학생들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의 경우도 진학과 졸업에 대비 계열별 반편성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학과 직업에 대해 의식적 탐색을 해보았을 것이므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년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도구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설문지의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청소년기 여학생의 직업희망은 개방형 질문 형식으로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서 각각의 여학생들은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직업 희망자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을 해당 직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전체 종사자의 20% 이하인 직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전통적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은 전통적 직업으로 간주하였다. 20% 기준은 선행 연구들이 20%(Sutherland, 1984), 33.1%(Shappiro, 1982), 또는 40%(Crawford, 1978)를 기준으로한 것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던 당시, 한국의 중등학교 교사직의 여성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의 26.2%였는데, 사회 통념상 교사직이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를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직업으로 나누기 위한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한국 노동부 간행 『임금실태 보고』의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1982년

Featherman과 Stevens가 개정한 Duncan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EI)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한 가족의 가장의 직업위세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지위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특히 가장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부모의 직업을 모두 물어보았으며, 우선 아버지의 직업을 가장의 직업으로 간주하였다. 만일 아버지가 안계시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 또는 그 이외의 가장에 해당되는 가족원의 직업을 사회 경제적 지위점수의 산출 근거로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을 ① 전업 주부, ② 취업, 또는 ③ 어머니의 부재. 세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지지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아래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청소년기 여학생 자신이 지각한 ① 자신의 직업적 희망에 대한 부모 각각의 영향, ② 자신의 교육과 장래 직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 ③ 장래 자신의 비전통적 직업선택에 대한 부모의 격려 및, ④ 자신의 장래 취업여부에 대한 부모의 압력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3. 자료 수집 절차

연구자가 직접 미리 선정한 9개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의 양해 아래 조사 대상자인 여학생들에게 조사자료의 성격과 응답요령을 간단히 설명한 뒤 학급 단위로 배부하여 응답토록 한 뒤에 바로 수집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의 희망직업

조사 대상자의 희망직업을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과 전통적인 직업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1,320명의 여학생들이 희망한 직종의 수는 41개이었고 그 가운데 17개의 비전통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여학생은 346명으로 전체의 26.2%였다. 희망자가 가장 많은 직업은 중 고등학교 교사로서 전체의 14.5%에 해당하는 여학생이 중등학교 교사직을 희망하였다.

<표 2> 비전통적 직업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여학생

비전통적 직업	실수	%
의사	70	20.2
대학교수	53	15.3
외교관	40	11.6
무역관계 경영자	32	9.2
과학자	28	8.1
건축가	23	6.6
공학자	17	4.9
사학자	13	3.8
컴퓨터 프로그래머	13	3.8
변호사, 판사	12	3.5
군인 장교	9	2.6
영화 감독	8	2.3
작곡가	8	2.3
형사, 경찰관	7	2.0
수의사	7	2.0
비행사	4	1.2
증권관계 전문가	2	0.6
계	346	100.0

<표 3> 전통적 직업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여학생

비전통적 직업	실수	%
중, 고교 교사	191	19.6
신문, 방송 관계 직업	187	19.2
사무직	129	13.2
의류 디자이너	84	8.6
실내 디자이너	79	8.1
간호원	40	4.3
약사	37	3.8
번역가	34	3.5
여행 안내원	27	2.8
배우	27	2.8
화가	23	2.4
음악 연주가	22	2.2
국민학교 교사	20	2.1
유치원 교사	16	1.6
비서	15	1.5
종교관계 직업	14	1.4
미용사	11	1.1
사회복지사	6	.6
한의사	5	.5
코미디언	2	.2
운동선수	1	.1
판매원	1	.1
영양사	1	.1
가정주부	2	.2
계	974	100.0

한편 중 3과 고 2의 연령 차이에 따라 희망 직업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4)에서 보듯이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중 3과 고 2 여학생의 전통적/비전통적 직업 희망의 비교

직업희망	중 3		고 2	
	실수	%	실수	%
비전통적 직업	200	28.7	146	23.8
전통적 직업	507	71.7	467	76.2
계	707	100.0	613	100.0
$\chi^2=3.394$, $df=1$, $p>.05$				

2. 청소년기 여학생의 비전통적 직업희망과 가정환경요인의 관계

1)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

여학생의 희망 직업 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비전통적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전통적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학생들 보다 점수가 약간 높았다. (45.12와 42.58) 두 집단의 점수차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희망직업 유형별 사회 경제적 지위점수의 비교

직업희망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비전통적 직업	346	45.12	15.0	2.74*
전통적 직업	974	42.58	14.5	
* $p<.01$				

2) 어머니의 취업요인

어머니의 직업유무 조건에서는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희망직업 유형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청소년기 여학생의 희망 직업 유형비교

	직업희망			
	비전통적		전통적	
어머니의 취업상태	실수	%	실수	%
가정주부	211	61.0	607	62.3
직업유	96	27.7	295	30.3
어머니의 부재	39	11.3	72	7.4
계	346	100.0	974	100.0
$\chi^2=5.2$ $d=2$ $p=.05$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391명의 직업을 전통적/비전통적 유형으로 나누어 딸의 희망 직업 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7〉,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조사 대상자 1,320명 가운데 비전통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례수가 겨우 43명이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 물론 이 결과는 Shapiro와 Crowley(198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취업자체 보다는 어머니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딸의 융통성 있는 직업의식을 위한 긍정적 조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7〉 어머니 직업 유형별 딸의 희망 직업 유형 비교

	딸의 직업 희망			
	비전통적		전통적	
어머니의 직업	실수	%	실수	%
전통적	77	80.2	271	91.9
비전통적	19	19.8	24	8.1
계	96	100.0	295	100.0
$\chi^2=85.95$ $d=1$, $p.01$				

〈표 8〉

청소년기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요인별 두집단
(전통적/비전통적 직업 희망 집단)의 차이에 대한 chi-square검증

가족의 심리적 지지요인	χ^2	자유도	유의성
딸의 희망 직업에 대한 부의 영향	5.62	2	
딸의 희망 직업에 대한 모의 영향	0.33	2	
딸의 학업에 대한 부의 관심	12.39	3	**
딸의 학업에 대한 모의 관심	4.50	3	
딸의 장래 직업에 대한 부의 관심	8.71	3	*
딸의 장래 직업에 대한 모의 관심	2.41	3	
딸의 비전통적 직업선택에 대한 부의 격려	51.92	1	***
딸의 비전통적 직업선택에 대한 모의 격려	49.94	1	***
딸의 장래 취업에 대한 부의 압력	89.67	3	***
딸의 장래 취업에 대한 모의 압력	70.67	3	***
$p < .05,$		$**p < .01,$	$***p < .001$

3) 부모의 심리적 지지요인

청소년기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요인과 희망직업 유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표 8〉 자신의 희망직업에 대한 부모의 영향면에서는 전통적 직업 희망 집단과 비전통적 직업 희망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딸의 학업과 직업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딸의 학업과 직업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딸에 대한 심리적 지지가 딸의 직업에 대한 융통성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딸이 비전통적 직업을 갖도록 부모가 격려하는 것은 딸의 비전통적 직업선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의 취업에 대한 부모의 압력요인 역시 딸의 비전통적 직업희망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는 딸의 희망 직종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딸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취업에 대한 압력을 통하여, 그리고 딸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을 갖도록 격려함으로써 딸의 융통성 있는 직업의식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의 약 3/4이 사회통념상 여성적인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기 대다수 여학생들의 직업관이 성 고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한국 여학생들의 가정환경은 대체로 그들의 희망 직업 유형과 관계가 있다. 사

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은 여학생들이 비전통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것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딸이 비전통적인 직업을 희망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직업이 비전통적인 것일 때는 딸이 비전통적 직업을 희망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청소년기 여학생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여학생의 비전통적 직업선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딸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아버지의 격려와 관심이 딸의 융통성 있는 직업의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지위 *status*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과 어머니의 취업요인은 어떤 의미에서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딸에 대한 심리적 지지요인은 부모의 의식적 노력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요인인 것이다. 이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딸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여학생들의 생활에 주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 예컨대 교육자들에 의한 심리적 지지

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진로의식 발달을 위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몇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 도구가 전적으로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한국 여학생의 가정환경요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측정은 미국의 직업적 지위 개념을 적용한 것이므로 한국의 직업위세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Trieman(1977)이 “직업의 지위는 농촌 사회에서부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한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사례가 조사대상자의 3.2%에 불과하였는데 이처럼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노동부(1986), 임금 실태 보고
- 유미숙(1983), 아동의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의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희(1985), 여성과 노동, 서울; 동녘출판사
- 이 옥(1987), “청소년기 여학생의 비전통적 직업선호 요인으로서의 직업정보의 탐색행동과 인지적 복잡성”, 학생지도 연구 제7집 pp. 22-40 덕성여자 대학교 학생생활지도 연구소
- 이 옥(1986), 대학생의 정체감, 한국아동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pp. 19-24.
- Almquist, E & Angrist, S.(1970), Career salience and atypicality of occupational choice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42-2
- Berman, Y.(1972), Occupational aspirations of 545 female high school sen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 173-177.
- Caplow, T.(1954), *The sociology of work* New

-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Crawford, J. d.(1978),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choice in pioneer and traditional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129-139.
- Danziger, N.(1983), Sex related differences in the aspir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Sex Roles*, 9(6), 683-695.
- Dillard, J.M. & Perrin, D.W.(1980), Puerto Rican, black, and Anglo ethnic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expectations, and maturity.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8, 313-321.
- Featherman, D. & Stevens, G.(1982), A revised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istics: Application in analysis of sex differences in attainment. In M. Powers(Ed.), *Measures of socioeconomic status, current issues*(pp. 83-127). AAAS selected symposium 81.
- Ginzerg, E., Ginsberg, Axelrad, S., & Herma, J.(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ins, M., Hendricks, J., & Martindale, L. (1982), The importance of extra-familial support on career choices of wom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455-460.
- Holland, J.L.(1966), *The psychology of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personality types and environmental models*. New York: Ginn.
- Jordan, M.I.(1978), A study of perceived parental influence toward daughter choice of college academic major(Doctoral disserta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197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4733-A.
- Lavine, L.O.(1982), Parental power as a potential influence on girls' career choice, *Child Development*, 53, 658-663.
- Nagely, D.S.(1971), Traditional and pioneer working moth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331-341.
- Roe, A.(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Schlossberg, N.K. & Goodman, J.(1972), A woman's place: Children's sex stereotyping of occupation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266-270.
- Shinar, E.H.(1975), Sexual stereotypes of occup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 99-111.
- Super, D.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iedeman, D.V.(1961), Decision and vocational development: A paradigm and its implication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0, 15-21.
- Trieman, D.J.(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ABSTRACT>

Family Background Variables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Related to Their Occupational
Aspirations

Ock Rhee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an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female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three family background variables: (a) socioeconomic status, (b) maternal employment, and (c)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The researcher developed a questionnaire to gather the data on a student's occupational aspiration, socioeconomic status of a student's family,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arental support as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The total sample in the study consisted of 1,320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girls in Seoul, Korea.

The study revealed that:

- 1) Korean female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were still sex-stereotypical as almost

three quarters of them aspired to female-dominated occupations.

- 2)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was a variable related to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of female adolescents. Mothers' employment was not related to the type of occupational aspirations of female adolescents except the occupations the mothers held were nontraditional occupations. Some aspects of perceived parental support were associated more with daughters with nontraditional occupational aspirations than those with traditional aspirations. Among those were the father's concerns about daughter's educational achievement and future career, and reinforcement from both parents on their daughters' having career in the future.